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4년 9월호)



초대합니다

한국 총동문회 모임

- 일시: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4:30
- 장소: 인천계산중앙교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82 (작전2동 410-1)

회 장 : 곽주환목사
총 무 : 최신성목사
부총무 : 김두영목사
서 기 : 박동식목사

초대의 글



클레어몬트 한인 동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새롭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공통된 경험과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꿈꿔왔던 우리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복음을 새롭게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클레어몬트 한인동문총회를 오후 4시 30분,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임에는 부총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경식 박사님과 부학장으로 부임하신 김남중 박사님이 참가하실 예정입니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춧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동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꼭 오셔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인동문회 회장 곽주환목사 드림

영적 연대의 실천: 한인교회들의 장학사역 소개

1957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로부터 분립하여 클레어몬트로 이전한 후에 미 연합감리교 소속 13 신학대학원 중 하나로 성장한지 67년이 지났다. 67년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USC 전에 Maclay 신학대학교로부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139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클레어몬트로 이전하여 독립한 것이 비교적 짧은 역사이었기에 재정적 도전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매년 겪는 어려움이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계적 명성의 신학대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를 지지하고 경제적으로 도왔던, 그리고 영적 연대의 실천을 본보인 많은 기부자와 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러 한인 교회와 한인 기부자도 장학 사업을 통해 CST의 한인 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있다. 본 기사에서는 한인 교회 장학재단 몇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자, 교육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이 외의 많은 교회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연대하여 신학 교육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이다.

1. 안나 장학회



2024년 8월 17일 안나장학회 수여식, CST 신입생 이혜인과 이경식 부총장 참여

1983년 나성영락교회 여성교회 여름 수양회에서 20여명의 권사들이 설립한 안나장학회는 나성영락교회의 장학회를 운영하는 동시 한인 교계 최초 독립 장학재단을 설립하였다. 올 해 41주년을 맞은 안나장학회는 유능하고 제대로 된 한인 2세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안나장학회를 설립한 원래 취지였다고 한다. 이 장학회에 속한 권사들은 꼬깃꼬깃 접어둔 쌈짓돈을 모아 탈북 청소년을 대학에 보냈고, 마약에 빠진 청년들을 건전한 사회로 불러내기도 하였다. 자녀가 준 용돈을 모아 LA, 북한, 한국, 중국, 멕시코까지 보내지는 사랑의 장학 사업이 41년째 지속되고 있다. 프린스턴신학교, 풀러신학교, 미주 장신, 연변 기술대학교, 평양 과학기술대학교, 포항 한동대학교, 그 외 많은 학교에 장학금을 보냈고, 2024년 처음으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이 중에 포함시켰다. 2024년 4월 정정숙 회장, 정화순 (전 회장), 그리고 박인숙 (전 회장) 권사는 이경식 부총장의 안내로 새로 이전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올 해 클레어몬트 학생 3명에게 \$5,000수여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그 결과 이혜인 (M.Div.) 전도사와 이규운 (D.Min.) 목사가 장학금을 신청하여 \$4,000의 장학금을 8월 17일에 수여하게 되었다.



(2024년 4월 안나장학회, CST 방문: 정정숙 (회장), 박인숙, 이경식, 정화순)

장학금 신청은 4월부터 이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pfzDCUWtZaZ2bb7sCQMznz9x_uZVfDUr80xD-FVYDYs/)에서 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pfzDCUWtZaZ2bb7sCQMznz9x_uZVfDUr80xD-FVYDYs/

2. LA 연합감리교회 장학회



(2024년 3월 10일 120주년 기념예배 후)

LA연합감리교회는 1999년에 교회 발전 기금을 만들어 현재 144만 달러의 기금을 보유한 장학재단이 되었다. 매년 이 기금의 이자를 사용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며, 2024년 현재 280여명의 학생들에게 \$50만불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144만불은 California-Pacific 연회를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 2024년에는 교회 소속 자녀들 외에 미자립 교회 목사 자녀 및 탈북자 자녀를 포함한 23명의 다양한 학생 및 멕시코, 몽골, 브라질, 카자흐스탄 선교지의 학생들에게 수여되었다. LA연합감리교회는 지난 몇 년 꾸준히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 매년 1만 달러를 기증하고 있다. 올 해 총 \$61,000의 장학금을 지불하였다.

LA연합감리교회에서 10년째 담임 목회를 하며 CST 동문인 이창민 목사는 장학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공부하면서 참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때도, 미국에 와서 유학할 때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때도 많은 이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기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받을지도 모를 장학금을 선뜻 회사한 이들의 사랑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설립된 한인 최초 교회인 LA연합감리교회는 늘 미래지향적이었다. 장학회를 설립한 것도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 교인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수혜되는 생명보험금이 이 장학회에 입금되도록 하기도 하였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인 교회의 “장자 교회”로서 본을 보이고 있다.

3. 나성 영락교회 장학재단



(2024년 8월 3일 나성영락교회 장학금 수여식)

나성 영락교회의 장학재단은 기독교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와 기독교 리더십을 키우기 위하여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왔다. 영락교회 장학재단 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장학금이 있다.

(1) Rev. Kye Young Kim Memorial Scholarship: 이 장학금은 영락교회의 설립자인 고 김계영 목사를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신학 및 목회 학문을 추구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Ph.D. 과정에 있는 손보화 목사가 이 특별 장학금 만 불을 수여하였다.

(2) Anna Mission Group Scholarship: 안나선교회의 이름을 딴 이 장학금은 선교 활동에 특별히 기여한 학생 또는 선교사의 자녀를 위해 설립되었다.

(3) Seminary Scholarship: 신학 전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신학교 학업을 지원하여 미래의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한다.

(4) General Scholarship - 일반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봉사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장학금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신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신청은 매년 이 [링크](https://youngnakscholarship.org/)에서 할 수 있다. (<https://youngnakscholarship.org/>)

4. 정동제일교회



(정동제일교회 연합여선교회 특별찬양 모습, 출처: 정동제일교회 홈페이지)

한국 감리교 교단 소속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정동교회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국 개신교 선교를 가능하게 하였던 일본 주재 Robert Maclay (1824-1907) 선교사가 고종의 선교유서를 받아 그후 1년이 되지 않아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 Maclay 선교사의 동생이 Maclay신학대학교(CST의 전신)를 설립하였고, Robert Maclay 선교사는 일본 선교를 마치고 California에 정착하여 CST의 학장을 지냈다. 한국 개신교 선교와 관련이 있는 CST는 클레어몬트로 이전한 후에 한인 유학생을 유치해왔으며, 한국 감리교단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를 귀하게 여겨 정동교회는 수년 전 ‘아펜젤러-정동제일교회 장학금’을 설립하여 매년 CST에 장학금을 기증하고 있다.

정동제일교회의 장학사업은 교회의 여러부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한 부서가 연합여선교회인데, 연합여선교회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이끄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우수한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여선교회는 특히 신학대학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심이 돈독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이 장학금은 학부생(등록금 전액)과 대학원생(등록금 50%)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성적 우수자와 감리교 여성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장학생 모집은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한다. 정동제일교회 연합여선교회는 이러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적, 영적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감신소식’ 장학/학자금 란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mtu.ac.kr/mtu/board/view.do?mld=160&brldidx=19757>)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이경식 부총장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교육과 사명은 여러분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장학금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는 우리 학생들이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경식 부총장은 또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영적, 학문적 리더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우리 교회와 신학 교육 공동체의 힘과 연대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도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인 교회의 장학사역은 영적 연대의 중요한 실천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연대와 지원은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영적 및 학문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러한 사역이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2024년 7월 서울에서 CST의 전문상담박사 과정 출범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CST에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전문상담박사(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DPC) 학위가 지난 7월 서울에서 7명의 학생과 함께 성공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DPC 과정은 CST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HCG)의 협조 관계 아래 상담학 석사나 관련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전문 박사 과정이다. HCG는 CST의 동문인 정태기 박사 (현,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이다. DPC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유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위이다.

1기에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7명이다. 이 학위에서 학생은 총 36학점을 수강하며, 학생들은 2년 반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한국을 오가며, 세션마다 2주간의 집중 수업을 듣게 되어 있다. 임상 훈련은 HCG에서 받게 되어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CST 동문이며 HCG의 교수인 유상희 박사와 김용환 박사가 각자 “상담 윤리”와 “노화, 노인과 상담” 과목을 강의하였다.



대부분 학생은 전문 상담가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상담소를 운영하는 상담사, 사회복지 단체의 상담사, 목회자 등, 다양한 상담의 사역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상담 지식을 소유한 이들이다. 이 중에는 Canada에서 온 목회자와 한국 여수에서 온 학생도 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소그룹 토론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함께 식사를 나누기도 했다. 2월에는 (잠정적)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션이 열릴 예정이며 CST의 Frank Rogers 교수와 김정희 교수가 함께 “내면가족체계와 치유” 과목을, 이경식 교수가 “영성통합심리치료” 과목을 가르치게 되어있다. 2024년 현재 2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입학 신청 마감일은 9월 6일이다.



DPC의 디렉터 역할을 맡은 이경식 부총장은 DPC에 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 “CST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과 함께 DPC는 한인 학생들을 위해 디자인된 학위입니다. CST의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은 영어 학위 프로그램과 동등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한국 사회에 긍정적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CST의 한국어 과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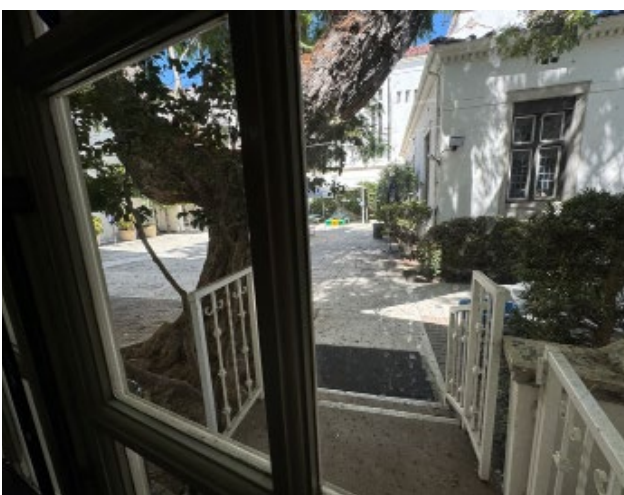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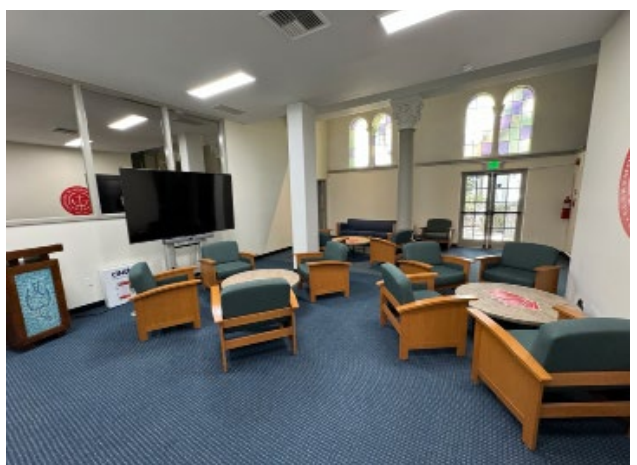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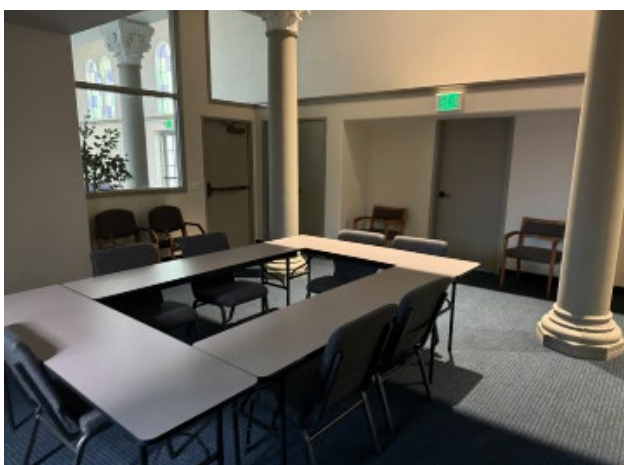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웨스트우드(Westwood) 캠퍼스로 이전 완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웨스트우드 캠퍼스 공사를 지난 5월에 마치고 새로 단장한 캠퍼스로의 이전을 마쳤다. 이전 완료로 인해, 학생들은 LA의 중심지인 웨스트우드에 위치해있고, UCLA 근접한 새로운 캠퍼스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마무리 공사를 통해 학교 생활에 유용한 공간들이 더 확보되어 여유 있는 캠퍼스가 마련되었다.

웨스트우드 지역은 LA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화의 중심지로서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실상부 학생들과 직원들이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 편안한 휴식 공간, 그리고 쾌적한 근무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더 로프트(The Loft)는 학생들이 식사와 교제를 나누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또한, 강의실을 다양화하면서, 학교의 대면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대면 수업과 줌 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 CST의 웨스트우드로의 캠퍼스 이전 완료는 학습과 교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며,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충분한 네트워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입생 환영회



2024년 8월 22일 Westwood 학교 캠퍼스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2024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은 85명인데, 이날 행사에는 총 45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15명은 현장에, 30명은 줌을 통해 참여했다. 신입생 환영회는 신입생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신입생 환영회는 그랜트 하기야 총장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하기야 총장은 신입생들에게 학업에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CST를 통해 누구나 존 캡 같은 뛰어난 교수나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기야 총장의 연설 후 학교의 스태프들이 소개되었고, 신입생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학 교육과 CST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가졌다. 신입생들은 Digital 도서관, 커뮤니티 라이프, 학술적 활동 등에 대한 학교의 주요 자원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부스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장한나 학생을 포함한 5명의 재학생이 패널로 참석하여 학교 생활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신입생들은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여 더 로프트(The Loft), 예배당, 강의실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이번 환영회는 신입생들에게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시설을 소개하며, 새로운 캠퍼스에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모든 신입생의 새로운 출발이 성공적이기를 바라며, CST에서의 신학 교육을 통해 그들의 삶과 사역이 justice, compassion, 그리고 belonging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가을 한인재학생 개강 모임

09
/
08

새학기를 함께 시작하는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9월 8일 주일 저녁 6시

장소: 이경식 부총장님 집

문의: 송영한 전도사/한인학생 회장
(yeonghan.song@cst.edu)



2025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기준 -

이병준 장로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 기준): **\$150,000**

- KEF 잔액(1990.03. - 2024.06.) :	\$2,371,654
- KLS 잔액(2018.10. - 2024.06.) :	\$607,770
- General Fund 합계(2024.03. - 2024.08.):	\$10,0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방법 안내

* 수표: 수표는 받는 사람을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로 쓰고 학교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장학금이 아닌 경우 메모란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이라고 명시해주세요.

* 온라인: 온라인 기부 링크는 <http://cst.edu/give/donate/>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금선택” 아래에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항목이 있습니다.

(한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이외에 학교를 위한 기부를 원하시면 “기금선택”에 “Generall Fund”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 계좌 이체(EFT)를 원하시거나 증권 기증을 원하시면 slee@cst.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